



요약

사설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

양성 여정

자연은 덕을 훈련하는 은총의 장.

알아봅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리의 ADMA
영적활성자인 SBD 샘슨 앤서니와의 인터뷰.

믿고 말하고 미소 짓자

ÁNGEL FERNÁNDEZ ARTIME 총장 신부의
편지 - 믿고, 말하고, 미소 지으십시오 - 150년의
여정.

아드마 입회지원자 양성

3.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입니다.

가족의 연대기

- 캐나다의 토론토 아드마.

- 제9차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사설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

P.1

사랑하는 ADMA 회원 여러분,

P.3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를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빛에 도달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P.8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사순절 메시지를 통해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라는
거룩한 변모의 경험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
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전례를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귀를 막는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미사에 항상 참석할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형제자매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P.10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마태 17,6~8). 이번 사순절의 두 번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의 고난과 어려움, 모순이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특별한 사건과 암시적인
경험으로 구성된 종교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빛은 부활과 영광의 예표이며, 그

P.12

영광을 향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순 시기는 부활을 지향합니다. ‘피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수난과 십자가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일상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성모님처럼 우리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루카 2,34~35 참조)을 통해 전례와 대중 신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고통의 동정녀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사람”(이사 53,3)이시며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기”(콜로 1,20) 위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것처럼,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수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고통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시기에 성모님의 삶 전체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지상 생애 첫 시작부터 수난을 받는 순간까지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함으로써, 고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루카 2,35 참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심은 고통의 어머니의 삶의 일곱 가지 주요 에피소드를 성모 마리아의 “일곱 가지 고통”으로 기억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 기도에 따라 성모님 고통의 길 또는 단순하게 어머니의 길이 이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어머니의 길의 초기 형태가 있었지만, 현재의 형태는 19세기 이전의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의 예언적 선포 (루카 2:34-35 참조) 로부터

아드님의 죽음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의 전 생애를 신앙과 슬픔의 여정, 즉 주님의 어머니의 ‘일곱 가지 고통’에 해당하는 일곱 ‘계절’로 표현한 여정으로 간주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어머니의 길을 걷는 것은 사순절 여정의 특별한 주제와 잘 조화를 이룹니다. 성모님의 고통이 그리스도께서 인간들로부터 거부당하신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길은, 끊임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종(이사 52:13-53:12 참조),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시 말해줍니다(요한 1,11, 루카 2,1-7, 2:34-35, 4:28-29; 마태 26,47-56, 사도 12,1-5 참조). 어머니의 길은 성모님께서 교회보다 앞서서 가신 신앙과 슬픔의 여정에서 단계별로 거쳐 가신 길이며, 교회의 신비를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길의 정점은 ‘피에타’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성모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느님, 고통 속에 계신 성모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수난 안에서 그분과 하나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분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시선 안에서 모두 거룩한 사순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빛은 파스카 영광의 미리 맛보기...”

양성 여정

자연은 덕을 훈련하는 은총의 장

우리는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덕을 쌓아 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겸손과 온유의 덕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5-30)”.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처럼 **“매일 일어나는 작은 불의, 작은 불편함, 사소한 손실을 온화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하느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마음을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내, 온유, 겸손, (부유함 속에서도) 마음의 가난, 뒷담화와 판단하지 않음은 미덕의 발전이 평화와 사랑으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레시오 영성과 돈 보스코의 위대한 유산인 친절한 사랑, 지칠 줄 모르는 노동, 살레시오적 절제와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가지 말씀, 즉 허락, 용서, 감사를 기억합시다.**

1.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마니피캣(여종의 비천함을 보시고 루카 1,48)과 성 바오로가 필리피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교적 찬가(죽기까지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심. 필리 2,8)에서 사용된 순종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명사 **tapeinòs** 와 동사 **tapeinò**입니다. 어렸을 때 미키 마우스를 읽으면서, 스크루지 아저씨의 이야기에서 막대한 재산을 잃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스크루지 아저씨의 대사는 ‘미 타피노’(나 불쌍한 사람!)였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그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어 연구에서 타피노는 문맥에 따라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낮고 우울한 장소, 낮고 작은 키
2.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낮고, 작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3. 영적으로 우울하고 낙담하다.
4. 도덕적으로 작고 평범하고 사소하며 겸손하다;

5. 평범하고 낮추고 가난하다.

마니피캣과 빌리피 서간의 찬가는 모두 의미론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 겸손하고 낮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예수님의 경우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모두 겸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나는 다른 하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느님의 만족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극단적으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굴욕 없이는 겸손이 있을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현실은 정비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약하고 가난하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타페이노), 스스로 낮아지는 자(타페이노)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4,11). 연약함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장막을 치고 거처를 짓고 거하실 수 있게 되는 상황, 즉 겸손의 찬가입니다.



2.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5-30)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구절은 11장 마지막에 있으며, 세례자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묻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사촌으로 예수의 사자로 선택되어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알아본 요한은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던 예수의 방문에 기쁨으로 환호하며 이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가 언급한 메시아의 특징, 즉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촌에 대한 칭찬과 선구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덧붙이십니다. 회심을 요구하는 세례자의 선포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자신이 선포하는 것 사이의 대조는 매우 강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갈릴래아 호숫가의 마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안식일과 성전에 관한 바리사이인들과의 논쟁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문제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과 아버지와의 효심 깊은 관계에 접근하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직된 마음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준수와 관련이 없으며, 까다로운 금욕주의를 통해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공짜 선물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감사기도를 바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작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하느님을 아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크고 부유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사람,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의 넓이와 폭과 깊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해 가지고 계신 지식은 특별합니다.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신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의 품에서 창조되지 않고 동일한 본질로 태어나셨으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성한 인격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은 실존적 연약함을 지닌 모든 인간을 향한 초대입니다. 수고와 피로는 인간에게 자주 나타나는 두 가지 삶의 상황이며, 육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실존적, 영적 차원에 훨씬 더 관련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고뇌, 전쟁의 부조리, 경제적 불확실성, 성장의 어려움, 새로운 책임감, 질병과 노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가혹한 현실과 역경의 역사에 직면하여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구하러 올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죠?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영생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고 너희를 섬기겠다. 지금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내 멍에를 매고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짐이 되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십니다. 멍에란 동물들을 한 쌍으로 몰기 위한 나무 도구입니다. 멍에는 항상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짝을 이루는 모습은 아름답고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의 멍에는 가볍고(나와 짝이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하는 것입니다(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키레네 사람들, 그분의 십자가와 기쁨의 키레네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타피노스) 내 멍에를 매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온유와 겸손의 학교로 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양처럼 온유하고 온화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처럼 단죄와 모욕, 학대와 비방을 받지 않는다면, 스승이신 주님을 알아 볼 수 없습니다. 겸손의 대가는 낮아짐과 구원, 기쁨의 열매입니다.

3.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겸손과 온유에 대한 가르침은?

진정한 겸손은 관대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낮출수록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 특히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은총을 통해 그분과 하나될 수 있도록 해주신 특별한 능력에 더 감사드리게 합니다. 겸손이 하느님의 선물에 대해 드리는 감사는 관대한 영혼의 기초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비참함과 한계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관대함은 성



바오로와 같이 ‘**내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관대함은 하느님을 신뢰하게 만드는데, 이 두 가지 덕행은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으며,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겸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결합을 지향하고 갈망하게 하는 힘을 주셔서, 우리 안에 두신 위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므로, 자선이 드러나는 겸손이라면, 겸손은 드러나지 않는 자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미덕을 숨기고 덮어 미덕을 보존하며 사랑이 요구할 때 미덕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지 않지만 자선이 요구될 때는 이웃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고 솔직하고 온화하게 이웃에게 베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선에 대해 편견을 갖는 모든 형태의 겸손은 거짓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부드럽고 강하며 고요하고 유연합니다. 이 길을 단순하게 걷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서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기를 촉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겸손을 추구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말며, 무엇보다도 항상 겸손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겸손이 항상 마음의 진정한 표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작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이 겸손이 당신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을 은총으로 채우시며, 사랑으로 당신의 작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가난을 사랑하고 부족함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당신을 채워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느님께 대한 겸손하고 따뜻한 신뢰의 정신으로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당신이 연약하고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더 용기 있게 희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너그럽고 관대하며 고요한 겸손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효심으로 자유롭게 사랑으로 자신을 보존하면서, 거룩한 기쁨의 영을 당신 안에 간직되도록 하십시오. (

영적담화, 5, 2-4; 8, 14; 3, 20 참조. 신심생활 입문(필로테아) III, 5. 1-11-1604, 1607, 8-1608의 편지).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에게서 특별히 빛났던 이 두 가지 덕목을 우리도 실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본받고 그분의 봉사에 헌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지상에서의 거룩한 삶의 여정에서는 항상 이 덕들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과 거룩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면서 서로에게 화내지 말고 여행중에 있는 동료 형제들과 조용히 평화롭게 걸어가십시오. 가능하다면 전혀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이유이든 분노에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절제와 균형으로 사용하기보다 분노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으로 분노가 우리를 놀라게 할 때, 분노가 마음의 주인이 되기 전에 분노와 협상하기보다 바로 거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노를 마스터하는 방법? 동요하는 마음 그 자체로 주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진지하고 침착하게 폭력 없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 간청조차 폭력적이지 않고 부드러우며 침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도록 허용했다면 그 사람에게 더 온화하게 대함으로써 즉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 화를 낼 필요 없이 차분해졌을 때 말과 행동에서 온유함과 친근함을 다시 채우십시오. 입술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온유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달콤함, 온유함, 평온함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낮에는 때때로 이러한 내면의 성향을 다시 불러 일으키십시오.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이 특별한 온유함의 연습을 통해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차분하고 고요한 영혼이 되십시오. 온유함이 부족하다면 화를 내지 말고 자신을 낮추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행동할 때에도 침착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고 어느 누구와도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성취하고, 갈등이나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은 놓아버리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방해함으로써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랑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데서 나타남을 온유함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순간입니다.** (참조: 신심생활 입문(



필로테아) II, 8, 26-10-1612, 2-1609, 10-11-1616, 16-12-1619의 편지)

4. 가난한 살레시오 협력자(예수의 베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베라: 오 나의 예수님, 저는 당신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 자신의 선물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 그것을 당신께 드리며, 저의 가난한 의지와 함께 당신과 나의 사랑스런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그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오 예수님, 저 자신과 싸우게 하시되, 당신께는 맞서지 말게 하시며,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제 온 마음을 가져가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저의 맥박이 뛰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싫어한다고, 그 맥박이 뛸 때마다 당신께 말씀드리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시여, 주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생명이 없고, 주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주님 외에는 나의 숨도 없나이다.

예수: “순명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것은 십자가요, 사랑이다. 나의 사랑과 나의 십자가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나의 목소리도 그러할 것이다. 순명과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과 참회의 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보라, 나는 사랑과 고통, 고통스런 사랑으로 네 안에 있겠다. 이 목소리, 나의 음성은 너를 정확시킬 불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성전이 불타기를 원하며, 나를 위해 소멸되기를 원한다. 나의 딸아,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네게 크다는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여라. 내일 거룩한 미사에, 너는 나의 선물들과 내 어머니의 마음의 선물들을 가져올 것이며, 너는 너의 불행과 너의 허무함과 너의 너무 작은 마음들을 그것들과 일치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포도주와 물을 기억하여라. 이 신비 안에 일치와 봉헌이 있다. 오직 나와 함께 제물이 성부께 바쳐진다. 오, 나의 딸아, 내 사랑에 잠겨라. 오직 나의 은총만이 너를 지탱해줄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켜라. 나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너를 끌어당긴다. 내 이름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 피곤함이 너를 짓누를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당신과 함께 나를 데려가소서, 117).

예수: “하느님의 선물, 사랑의 선물. 나의 사랑에는 경계와 장벽이 없다. 나의 은총은 사랑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나의 은총을 방해하는 것은 너의 불행이 아니다. 네가 포기하는 것들은 두려움, 불확실함, 한계 때문이다.

예수: “너는 얼마나 나약한 나의 딸인지! 나에게 오너라: 나는 너의 강한 힘, 너의 힘이다. 감실을 생각해보아라. 너는 감실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을. 너는 나의 현존을 믿어라. 너의 예수는 너를 속이지 않는다. **내가 예수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사랑을 네가 믿는다면, 너는 어떤 죄인에게도 그것을 말할 것이다. 나는 나의 거룩한 인간성에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지만,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인간성을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것이 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에게 말하는 나를 믿고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유를 설명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나도 기쁘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의 십자가를 느껴라, 나의 멍에를 느껴라! 네 자신이 나에게 침투되게 하여라”. (당신과 함께 나를 데려가소서, 120).

베라: 오 예수님, 저에게 죄의 고통과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을 주시고, 겸손과 순명의 은총을 주소서. 오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모두” 주소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나를 데려가소서, 122).

예수: “나의 딸아, 내 말을 들어라. 네가 겸손하게 나를 기다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너를 부른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큰힘이 있다. 나는 거칠고 구불구불 한 길을 따라 너를 인도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는 분은 감실의 예수님이시다.” **“나다”**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지금 할 일이 없으니 나를 기다려라. 나는 너와 다른 많은 영혼들이 출발할 “나의 길”을 준비한다.

나는 너를 오직 나를 위해 원하고, 너는 네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빼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위해 내 손에 맡겨라.** 너의 가족들은 내가 생각할 것이니, 너는 이 세상에서 “떠나”, 나를 위해 그것들을 놔두고, 항상 나만을 생각하여라. 나를 위해 이탈해야 한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그는 신랑의 신부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광기로 너를 끌어들이다.



“오 예수님, 저에게 죄의 고통,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을 주소서...”

보라, 나는 나의 부와 열정, 사랑과 슬픔의 열정, 희생, 제물, 죽지 않는 나의 거룩한 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나의 가난한 딸아, 너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 길, 진리, 생명이며, 때가 되면 너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겸손하게 머물러라. 너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내 피로 씻음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날에 피의 세례가 필요하며 오직 나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딸아, 네 자신을 준비하여라, 내가 곧 너에게 갈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그분을 기쁘게 한다. 너는 너무나도 “하찮고” 그래서 두렵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내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는 그 칼을 통해서, 내 음성이 너희에게 전해진다. “그녀”로부터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기도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청하여라.

그들이 내 아버지께 올 때에는, 향의 향기를 가져와야 한다.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 향기롭게 하여, 교회와 교황의 기도와 일치하여 기도하고, 가브리엘 신부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그가 나에게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모든 인류에게 나의 나라와, 나의 뜻, 사랑, 은총, 축복을 구하여라. 저녁 무렵 나는, 영혼들 사이로 세상에 내려와 그들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의 은총 속에서 나를 섬긴 영혼들에게 내려와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평온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나의 보물”입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나의 입이 되어 그들에게 말할 것이고,

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 속에 전달될 것이다. 이를 위해 너의 마음은 고통하고 피 흘린다. 그것을 가브리엘 신부에게 보내 고통의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나에게 바쳐라. 나의 원의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기록하여라. 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의 사랑을 말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통해 모든 이를 받아 안을 것이다.

이 특별한 나의 축복으로 마무리한다. 나는 너희 모두를 원하고, 너희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 나의 딸아,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맞다 맞아, 내가 예수다”. (당신과 함께 나를 데려 가소서, 128).

개인기도와 묵상을 위하여

1. 작은 불의나 일상의 어려움을 인내와 온유로 견디고 있습니까?
2.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좌절하여, 스스로 내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교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니까, 아니면 하느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까?
3.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이 내 짐을 함께 져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달의 약속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알아봅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리의 ADMA 영적활성자인 SBD 샘슨 앤서니와의 인터뷰.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Madras/Chennai에 있는 Our Lady of Lourdes(약 90년 전에 설립된)라는 인도의 살레시오 본당 출신입니다. 살레시오 본당 출신이라 어린 시절에 살레시안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본당은 다문화라 다국어 사용하는 본당이었고 저는 돈 보스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리교사가 누가 수도회에 입회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수도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모님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젊은이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 신부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겠어요?

사제 서품을 받고 인도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후 선교사로서 그리고 탄자니아 무시 수련소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인도로 돌아왔지만 스리랑카에 가서 철학을 가르쳤지요. 그 후 다시 인도로 돌아와 교구 신학교와 인도의 11개 살레시오 관구의 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또한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산 칼리스토의 카타콤에서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갔었고, 아직 까따툼바에 있는 동안 로마 UPS에서 몇 가지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주민이 많은 도시 팔레르모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UNIPA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을 기회가 얻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 11년 반을 보낸 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로 와서 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MA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부님의 주/지역에서 신심회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 곳에서 발전했나요?

첸나이에 돈 보스코 성당이 있는데 그 본당신부님께서

ADMA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곳에서 저는 신심회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관구의 많은 본당들이 ADMA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ADMA가 거의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본당에서는 전에는 졸업생들의 작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인들도 기도와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인 인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DMA라는 이름으로 신심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후 저는 그들에게 ADMA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ADMA 지회 설립 허가서를 받았고 2022년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첫 그룹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드마 프리마리아와 미국 살레시오 영적활성자들의 조언에 따라 22명이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24일, 17명이 서약했으며, 모두 청년들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결혼도 했습니다(부부도 몇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ADMA 회원이 되기 위해 양성중에 있습니다. 그들도 청년들이며, 우리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심회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있습니다.

- 신부님께서서는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그룹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요?

우리 살레시오 본당에는 살레시오 가족에 속한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협력자, 졸업생, 아드마. 그리고 FMA는 길 건너편에서 큰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개의 학교(초등학교 및 기초교육)와 지역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레시오 가족 전체 모임을 할 때는 모두 참여합니다. 살레시오 가족 전체 모임(웹사이트 olgcsurrey.ca에서 볼 수 있음).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ADMA와 본당의 여러 그룹에 대한 최신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살레시오 축제는 함께 조직하며 거행됩니다.

-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존하고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마리아께 의탁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본당에서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합니다. 가족을 방문하고, 병원과 양로원을 방문하며... 거룩한 성사와 대중의 성사생활을 위해 복음화의 길이라고 부르는 계획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그룹을 위한 많은 활동도 있습니다. - 활기찬 본당입니다!

우리 성당에는 24시간 성체조배가 있으며, 신자들은 밤에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성당문의 비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거나 기부금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많은 그룹이 있고, 복음화의 길, 학교 교사들도 아주 젊기 때문에 학생들과도 친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청소년 합창단도 있습니다. 많은 소년 복사들이 있습니다. 소년들은 소외되지 않으며 단지 구경꾼으로만 참여하지 않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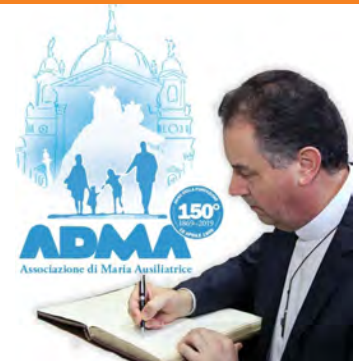
돈 안토니 삼손,
애니메이터 ADMA Surrey, BC - 캐나다.

믿고, 맡기고, 미소짓자

ÁNGEL FERNÁNDEZ ARTIME 총장 신부의 편지 항복, 신뢰, 미소! - 150년의 길

살레시오 역사가 피에트로 브라이도(Pietro Braidò)는 돈 보스코에 의한 ADMA의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 보스코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공경과 신심에서 아드마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심회의 이름이 성모님의 이름입니다. 신심회는 돈 보스코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사랑과 증거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드마는 두 수도회와 협력자회 다음으로 돈 보스코에게 가장 소중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계획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법령의 텍스트, 관련 대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긴 일련의 기도와 종교적 관행, 대사에 대한 일반적인 간략한 교리 교육, 1868년 5월 22일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io IX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토리노에 있는 원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께 봉헌된 성당과 그와 같은 이름으로 봉헌된 성당을 “신심을 가지고”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대사를 부여했습니다.”



Don Bosco(오늘날 ADMA)에 의해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협회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차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인 서거 100주년이 되는 1988년, 에지디오 비가노(Don Egidio Viganò) 총장 신부에 의해 역사적인 재 발돋움이 일어났습니다.

수도회와 살레시오 가족은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으로 성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살레시오 영성은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에 대한 우리의 신심은 살레시오 사명과 돈 보스코께서 성령의 은사로 받은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봉헌생활회성과 사도생활단성은 신심회의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ADMA는 가족들의 참여와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국제 회의와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쇄신되었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연간 양성 여정과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월례 기념, 피정과 영적 훈련, 사회 커뮤니케이션과 도움이신 마리아 수첩과 같은 출판물을 통해, 전 세계 800개 이상의 지회 간의 소속감 함양을 위해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아드마 입회지원자 양성

3.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입니다

토리노 발도코의 ADMA 입회지원자의 초기양성 과정의 세 번째는 살레시오 가족에 속하는 ADMA를 다루는 신심회 규정 3조입니다.

신심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도움이신 마리아의 지도 아래 젊고 대중적인 사명을 위해, 돈 보스코가 추진한 운동인 살레시오 가족의 큰 나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1878년에 쓴 것처럼- 우리 서로가 또한 수도회와 함께... 같은 목적과 목표로 하고 같은 방법을 통해... 이웃을 위해 서로 돕고 지원하며 한 가족으로 형제적 사랑의 유대를 맺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Don Bosco의 가족은 Don Bosco가 영감을 받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주보로 선택하셨으므로 살레시오인입니다. 살레시오 휴머니즘은 사람의 선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창조된 현실 안에서 모든 긍정적인 가치를 역사적 사건 안에서 선으로 이끌어주며 부정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발견하고 인정하며 소중히 여겨야 할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협력하고 탐색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격려하는 교육의 힘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항상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하게 됩니다. 살레시오 가족은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류 가족의 근원이시고 모델이시며 목표이신 삼위일체의 신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일치 이루며, 성령의 활동에 온순하게 순종하면서, 사람들의 선익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일상의 영성을 살아갑니다. 돈 보스코 안에서 이 영성은 **“Da mihi animas, cetera tolle”**라는 모토와 함께 사도적 사랑이 됩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영성입니다. 형제들의 필요가 기도로 초대되고 끊임없는 기도가 형제들의 선과 구원을 위한 너그러운 활동의 자양분이 됩니다. 살레시오 영성에서 기도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하느님께 도달하는 운동이며, 마음과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행위로 돌아가 그분을 모셔오게 됩니다. 돈 보스코는 행동과 기도가 하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에게 닥친 놀라운 일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도를 일깨우고 기도로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배양된 기도는 그의 가난한 젊은이들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 보스코로부터 물려받은 살레시오 영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레시오적 자애:**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
- **지칠 줄 모르는 일과 절제:** 젊은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 봉헌.
- **살레시오 낙관주의:** 선의 승리에 대한 신뢰,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감사, 일상의 기쁨에 대한 교육.

살레시오 가족은 성령께서 영혼의 선익을 위한 선물과 봉사로 재촉하시는 내적 역동성을 촉구하신다는 점에서 사도적입니다. 살레시오 가족 구성원은 돈 보스코의 교육적 지혜에서 압축된 예방 교육을 촉진하는 “친교적 사명”을 살아갑니다.

1. 이성은 그리스도교 인본주의의 가치(의미, 일, 공부, 우정, 명량함, 신심, 책임 지는 자유, 인간의 슬기와 그리스도교 지혜의 조화);

2. 종교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대한 열망을 키우며 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3. 친절한 사랑은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일깨우고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사도적 임무의 특별한 대상자들은 젊은이들, 특히 서민층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마리아께서 돈 보스코에게 가르쳐 주신 살레시오 가족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성 바오로 6세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대중적인 신심은 더욱 더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은 마리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성과 염려가 자기를 온전히 내어준 마리아의 빛나는 모범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황에 대한 신심과 함께 돈 보스코의 영적이고 사도적인 삶을 특징 짓는 세 가지 신심 중의 하나였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은 모두 성모 마리아 가족이며, 원죄 없으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어머니의 염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ADMA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근본 요소를 표현하는 성 요한 보스코가 특별히 실천하고 전파한 성체성사와 마리아 신심에 밀줄을 굶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DMA도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며, 수호하는 보편적인 사명과 살레시오 카리스마인 젊은이를 위한 사명에 참여하며, 특히 현 시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신 바와 같이,

“오늘날 신앙의 크나큰 시련으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한 아들딸들이 주 예수님께 대한 충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인류가... 교회는 영적 가치의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며, 성모님의 모성적 중재로, 우리 신앙을 다시 충전하여,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용기와 새로움으로, 세상의 복음화를 추진하고, 신앙을 일깨우며, 유일한



**“Da mihi animas, cetera tolle”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성입니다.**

구세주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 보스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듯이, 특히 젊은이들이 개별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젊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들을 교육하여 빛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살레시안 가족의 아버지이자 일치 중심의 중심은 돈 보스코의 후계자 총장입니다. 돈 보스코는 그의 후계자에 대하여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총장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돌볼 것입니다.”

지안 루카와 마리안젤라 스페소

가족의 연대기

캐나다의 토론토 아드마



토론토 ADMA 신심회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인도와 보호 아래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았다.

1월 24일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중에 안젤리나 벨리오가 성모님의 엄숙한 서약을 했고, 다른 회원들도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 회원으로서 서약을 갱신했다. 우리의 영적활성자인 프랭크 켈리(SDB) 신부는 경탄할만한 강론으로 우리를 축복했고 안젤리나에게는 ADMA 메달을 선물했다. 미사 후 기념 사진을 찍었으며, 식사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었다.

우리는 SDB의 켈리 신부님의 지도로 매월 모임을 하고 있으며, 1년에 세 번의 피정을 한다. 올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심화하고 있다.

제9차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Dar·te·ei a
MESTRA
IX Congresso Maria Auxiliadora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의 날을 맞아 제9차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개최가 발표되었고, 도움이신 마리아 협회(ADMA)인 우리와 모든 살레시안 가족에게 공지되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는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개최됩니다.

포르투갈 살레시안이며 총회의 총괄 진행자인 안토니오 마르셀리노 신부와 ADMA 세계 평의원인 조바니 스카비노 신부는 성모님께 감사와 의탁을 드리는 이 중요한 기회를 준비하자고 열정적으로 모든 살레시오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1917년 성모 마리아가 세 명의 어린 양치기 어린이에게 나타나 전 세계를 기도와 보속으로 초대하신 중요한 마리아의 장소인 포르투갈 파티마 성지의 “바오로 6세” 강당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2024년 창립 200주년을 맞이하는 돈 보스코의 아홉살 꿈을 기념하여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로 정했습니다. 이 꿈은 돈 보스코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평생 동안 그를 인도했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예수님과 가장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한 여정에서 온 살레시오 가족을 동반하고 인도하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이 대회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https://mariaauxiliadora2024.pt>

살레시오 가족의 이 큰 행사의 준비와 여행을 기도에 맡깁니다.